

비즈 프리즘 | 2018년 ICT 업계 결산

5G시대 활짝...기업 먹거리 지도가 바뀐다

이통3사 5G, 12월 초 세계 최초 상용 ‘초연결사회’ 경종 올린 통신구 화재 삼성-애플 2강, 중소기업 공세에 흔들



SK텔레콤은 5G를 통한 제조업 혁신을 목표로 5G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왼쪽)을 공개했고, KT는 5G가 생활과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1호 가입자로 인공지능 로봇 ‘로타’를 선정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KT

2018년 정보기술(IT) 업계는 어느 때보다 새 먹거리 발굴 경쟁이 치열했다. 관련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여러 차세대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5G가 연말 드디어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이동통신 3사는 12월1일 나란히 첫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업용이지만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다. 5G는 최대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른 20Gbps다. 가상현실(VR), AI 등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꼽는 서비스가 성공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기반기술이다.

현재 이동통신 관련 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까지 새롭게 열릴 5G시대에 맞춘 서비스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반인들이 5G 시대를 체험할 5G 스마트폰의 경우 내년 3월 쯤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급속한 기술의 진화는 장밋빛 기대감만큼 큰 우려도 낳았다. 첫 전파송출 일주일을 앞두고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는 다가오는 ‘초연결사회’에 대한 낙관론에 경종을 울렸다. 11월24일 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휴대전화 개인 이용자부터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5G는 ‘초고속’과 ‘초저지연’이란 특성으로 모든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일상생활의 통신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자율주행 등 안전에 민감한 서비스도 5G를 밑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망 이중화’ 같은 꼼꼼한 대비책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화재로

인해 공감을 샀다.

●상향평준화 스마트폰은 역성장

스마트폰 시장은 2018년에 접어들면서 확실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처음으로 역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600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가량 줄었다. 제품들의 성능은 상향평준화 됐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교체주기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사양에 가격이 낮은 중국 중저가 제품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화웨이는 올해 처음으로 애플을 앞서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 온 ‘삼성 VS 애플’ 양강 구도를 깨뜨렸다. 내년에도 시장 침체와 중국기업의 거센 도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의 요인도 있다. 새 통신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5G 스마트폰’과 ‘폴더블 스마트폰’이 그 주인공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7~21일

코스피지수	2061.49	↓	-7.89
코스닥지수	673.64	↑	+7.3
日 닛케이 지수	2만16.19	↓	-1208.64
中 상하이 종합	2516.25	↓	-77.4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84	↑	+0.06
환율 (원·달러)	1124.50	↓	-10.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5488.83	↑	+312.31

지수는 21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일정표 나온 새로운 인터넷은행
네이버·키움·인터파크 등 거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일정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안에 따르면 내년 최대 2개 사가 신규 인가를 받아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다. 3월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네이버다. 네이버는 국회에서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내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나설 경우 컨소시엄 파트너로는 현재 디지털 금융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유력하다.

인터파크도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이다. 2015년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했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렸다. 인터파크는 인가 발표 이후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이밖에 9월 이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전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키움증권도 후보로 거론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P&G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브랜드 연계한 사회공헌 눈길

한국P&G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소비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 브랜드를 활용한 캠페인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구강 전문 브랜드 오랄비는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36개 초등학교에서 칫솔 재활용 프로그램 ‘건강한 미소, 칫솔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총 363kg의 폐칫솔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화분으로 만들어 이것의 판매수익금과 지원금을 지역사회 어린이의 구강 검진·치료에 지원했다.

섬유탈취제 브랜드 페브리즈는 1월부터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분무기 공병을 수거해 놀이대·담장 등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아파트 분무기병 재활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복합물질로 제



오랄비 ‘건강한 미소, 칫솔 재활용 캠페인’(위쪽), 다우니 ‘한국 야생화 보호 캠페인’. 사진제공 | 한국P&G

작한 분무기 공병이 폐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11월까지 2만9962세대가 참여해 252kg의 공병이 모였다. 또 6월부터

이마트와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 공병을 재활용해 휴대용 반사경을 제작,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섬유유연제 브랜드 다우니는 8월부터 야생화가 서식하기 적합한 지리산 주변에서 ‘한국 야생화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리산 둘레길 주변 야생화 생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관광객이 주변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법을 알리고 있다. 2020년까지 둘레길에 ‘다우니 야생화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10월 서울 광화문 인근에는 야생화 전시관 ‘다우니 야생화 돔’을 개관, 한국의 야생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야생화 존’을 조성했다.

한국P&G 측은 “각 브랜드의 경영 활동과 연계된 환경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편의점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나요

세븐일레븐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무민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내놓았다. 케이크 위에 무민 피규어를 장식했으며 구매 고객에게 무민인형을 무료 증정한다. 통나무 롤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등으로 구성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세븐일레븐



교육·퍼즐

에듀윌

2019 공인중개사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선택, 합격자 수에 주목하라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내년 10월26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시점이 공부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에듀윌 공인중개사 전문 교수진은 “공인중개사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으로 불합격 시 1년이 더 소요되는 만큼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합격자 수야말로 가장 확실한 교육기관 선택 기준이 된다”고 조언한다.

자격증 교육기관에서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한 이유는 합격 사례와 합격 빅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서는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격에 특화된 커리큘럼이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며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기관에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 외에도 학습 습관을 관리해주는 관리 프로그램도 있다.

에듀윌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2년 연속 합격



터를 운영한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합격 이후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에듀윌은 자사 출신 합격자들을 모아 동문회를 결성하고 인맥을 제작하는 등 네트워킹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오는 1월5일 토요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와 부산 동야대 부민캠퍼스를 비롯 6일 일요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로얄호텔과 대구 엑스코에서 13시30분에 설명회를 개최해 에듀윌만의 합격 노하우를 공개한다.

자 수 최고 기록을 공식 인증받았다. 일례로 에듀윌은 업계 최대 규모의 1대1 학습관리 센터를 운영한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합격 이후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에듀윌은 자사 출신 합격자들을 모아 동문회를 결성하고 인맥을 제작하는 등 네트워킹에 힘을 쏟고 있다.

■ 스도쿠문제

	2			7	3			
		6				5		1
	3		1	5			8	
7			6		8	4		
6		3				7		8
		8	7		9			5
	9			2	1		7	
1		7				9		
			9	6			5	

			4		2		9		
			6	7		4			
7					1			2	4
		4		1		2		8	
3		2					7		1
	7		9		6			4	
2	9			6					8
			8		1	2			
		7		5		4			

■ 스도쿠정답

8	9	1	2	9	6	2	8	7	
7	2	6	9	8	8	2	9	1	
9	2	8	1	2	7	9	6	8	
5	9	8	6	7	2	8	1	2	
8	6	2	1	5	9	8	7	9	
2	1	7	8	8	9	6	9	2	
2	8	2	9	9	1	4	8	6	
1	8	9	7	6	2	9	2	8	
6	7	9	8	2	8	1	2	9	
6	1	7	8	9	2	2	8	9	
9	2	1	6	8	8	9	7		
8	9	8	2	9	7	1	6	2	
2	7	9	9	8	6	8	2	1	
1	6	2	8	7	9	2	9	8	
8	8	9	2	1	1	6	7	9	
7	2	8	6	1	9	9	8	2	
9	8	1	7	8	2	9	2	6	
2	9	6	9	2	8	7	1	8	